복음신문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毎月一日発行）
2024년 6월 1일 (토)　제 838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양영우・편집인 / 정수환
인쇄소　青丘文化社

어린이주일 설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3 : 14~17>

김 승 희 목사 (시모노세키교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재일대한기독교회 무코가와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학교에 다니고 풍부한 성경교육을 교회학교에서 받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 故・김길웅장로가 교회학교 교장이었고, 알기 쉽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 기독교 교육을 받아 신앙이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착하고 솔직한 학생으로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스폰지와 같이 흡수하면서 자랐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배움이 제 목회 현장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신앙과 영성을 쌓아 올리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아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18 : 3-4).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자녀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런데 작년에 애즈베리(Asbury)신학교에서 리바이벌(Revival신앙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70년 예배 후에 시작된 애즈베리대학 부흥은 185시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2023년에는 약 2 주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그 리바이벌집회에 참가하여, 미국 전국에서 모여 온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무엇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주최자 없는 이 부흥회는 지역사회를 시작으로 미국 전 대학으로 퍼졌고 매일 약 1만 5천여 명이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특이한 점은 부흥회 참석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종교적인 Z세대인 점이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일시적인 영적 믿음 각성(Spiritual Awakening)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는 너무 많은 선택과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 주께서 예언하신 바와 같이 전쟁, 거짓 선지자, 기근, 지진, 박해, 불법, 사랑의 식어짐(마태24장) 등의 '재난의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확실히 모르는 극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구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태11 : 28,29)"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 젊은이들은 그 모임에 인도된 것이라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티(identity)라는 말에는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사는 의미나 가치, 인생에 있어서의 역할 확인이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요한14 : 6)"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모든 세대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12 : 1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어린이나 젊은이에게 임박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리스도인인 성숙한 어른, 즉 부모나 목사 또 교회의 책임으로서 임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20 : 12)"라는 계명이 있지만, 루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에게 이어지는 최고의 존재로 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B.S차일드라는 구약 학자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가정에서의 종교 교육은 부모에게 부과되는 중대한 책임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에 연결된다. 부모님은 자녀를 낳고 그냥 키우는 것만으로 부모님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할 때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부모의 책임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 : 14)"는 말씀이 아이와 부모에게 명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価格：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관동지방회

제75회 정기총회 개최

동경녹주교회 명칭을 시온교회로 변경

관동지방회 제75회 정기총회가 2024년4월29일(월), 동경교회에서 총대 72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야나기마치 이사오 지방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지방회장 김용소 목사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편 29 : 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의사가 진행되어, 먼저 내빈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순서를 가졌다. 내빈으로는 일본기독교단에서 오우교구, 동북교구, 관동교구, 동경교구, 니시동경교구, 카나가와교구, 일본그리스도교회 동경중회.

결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교회의 장로증원 청원(요코하마 2 명, 시나가와2명, 동경7명, 동경희망그리스도2명), 공석중인 사회부장을 김신야목사로 변경, 무목교회의 임시당회장 선임에 동경교회의 구자우목사, 가와사키교회의 김신야목사를 유임 승인하였고, 동경녹주교회의 명칭을 시온교회로 변경, 札幌교회가 청원한 고토나나(後藤奈々) 자매의 총회신학생 인준 건은 고시부로, 예산안 15,433,382円이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보고 : 김명균)

서부지방회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무코가와교회 정시온목사 안수식도 거행

2024년 4월 29일(월) 오카야마교회에서 서부지방회 제40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한승철목사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자〉 (히12 : 14~17)는 제목의 설교 후에 최형철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이 거행됐다.

총대 33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가 선언되고 이어서 무코가와교회 정시온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었으며 주요 결의사항은 각종 보고 후 무코가와교회 장로 1명 증원의 청원 승인, 무목교회의 임시당회장 선임의 승인, 2024년 예산안(8,934,832엔)등을 심의하고 총회를 종료했다. (보고 : 윤종헌)

서남지방회

제74회 정기총회 개최

조은주목사 안수식도 거행

4월29일(월) 우베교회에서 서남지방회 제74회 정기총회가 총대 23명 중 18명,준총대 9명이 출석한 중에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신치선지방회장의 설교 '복음 전도자의 길(사도행전5:40-42)' 이 있었고, 이어서 성찬식을 가졌다.

회의가 시작되어 〈조은주전도사의 목사 안수건〉을 승인하고 조은주전도사의 목사안수식과 우베교회 담임목사 위임식을 김성효목사의 사회와 신치선목사의 사식으로 거행하였다.

가결된 주요 사항은, 서남지방회규칙개정안, 서남지방회규칙수정안, 전도부장선출 건은 새롭게 임명기목사(후쿠오카교회)를 선임, 오리오교회 장로선출 허락 청원, 코쿠라교회 장로선출허락 청원, 후쿠오카교회 장로선출허락 청원을 각 각 승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11,871,879円을 승인했다.

관서지방회

제75회 정기총회 개최

고대한 • 한선영 목사 안수식도 거행

관서지방회 제75회 정기총회가 2024년 5월6일, 오사카교회에서 총대 68명 중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모리카츠유키 지방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총회장 양영우목사가 〈게하시의 실패〉 (왕하5 : 20~27)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예배 헌금은 노토반도 지진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드려졌다.

정연원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된 후, 고대한목사(교토), 한선영 목사(오사카)의 안수식과 정동호전도사(오사카)와 구본서 전도사(교토)의 인허식이 거행되었다.

결의된 주요 내용은 각 교회의 장로증선 청원(교토 2 명, 교토남부2명, 오사카북부 3 명, 오사카2명, 후세1명)의 승인, 또한 공석중인 서기에는 송남현목사, 부서기는 배정애목사가 선출되었고, 예산안 9,444,560円이 승인되었다. (보고 : 송남현)

중부지방회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기후교회 선교비 보조를 승인

2024년5월3일 중부지방회 제61회 정기총회를 오가키(大垣)교회에서 개최하였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최화식목사가 〈그리스도인의 힘〉 (행10 : 17~23)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고, 채은숙목사(大垣)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지방회장이 내빈을 소개하고 내빈으로는 부총회장 장경태목사, 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 의장 가토 미키오(加藤幹夫)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회의에서 총대원 25명 중 21명이 출석하여 각종 보고가 있은 후, 나고야교회 장로 2명 증선 청원, 기후교회 선교비보조 청원, 박태원목사와 김지일목사의 무임소 목사 연장 등이 승인되었다.

2024년도 예산안(15,812,958円) 등이 승인되었다.

URM 국제심포지엄 개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를 주제로

5월13~15일, 한국 대전 빈들교회에서 제20회 〈이주민-URM〉 국제심포지엄' 이 개최됐다.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韓・日・在日교회의 선교과제' 라는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일본기독교협의회(NCCJ) 도시농촌선교위원회(URM)/외국인 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주최로 한국에서 20명, 일본에서 17명(중 KCCJ 5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에서는 '손을 내밀다' (열왕기하 10:15)라는 제목으로 안선철 감독(힐탑교회)이 설교했다. 주제 강연에서는 이기호교수(한신대)가 '경계를 필요로 하는 국가와 경계를 오가는 시민 –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의 위상과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동북아시아의 전환기를 맞이한 동북아시아에 대해 명료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일본이 지켜온 평화헌법 9조는 근민국가(近民国家)를 시민국가(市民国家)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발제1을 남재영 목사(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의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발제2는 오카모토 타쿠야(岡本拓也)목사(日本基督教団南住吉教会)의 '일본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기독교의 대처' 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모회사가 일본기업)의 해고 노동자의 증언이 있었다. 그리고 발제3으로 고기복목사(용인민중을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소장)의 '한국사회 이주민의 현실, 계절노동자의 인권, 국제연대의 성과와 과제' , 발제4는 사토 노부유키(佐藤信行)씨(외기협 사무국)의 '재일한국・조선인과 이주민・난민의 현황과 교회의 대처' 에 이어 전체토론이다, 전체토론과 공동성명에 대하여 협의했다.

※2024 日・韓・在日教会≪URM-이주민≫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보고 : RAIK고문 사토 노부유키)

양총회장 해외 협력교회 방문

대만기독장로교회 방문, 대지진 지원금 전달

지난 2024년 4월 16일~부터 18일、대만기독장로회(PTC) 제69회 정기총회 총회가 타이중시에서 열린 가운데 대만기독장로교회가 운영하는 창화기독의원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양영우총회장이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하고, 지난 4월 3일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만기독장로교회 소속 교회들의 복구을 위해 긴급 지진 성금 300,000엔을 전달하였다.

또한 양영우 총회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열린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총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NCKPC 총회는 2011년 4월 일본(오사카)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했고, 양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실행하지 못한 일본에서의 NCKPC 총회 개최를 일본에서 개최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신임목사의 포부>

○조은주(曺恩注)목사 (1978년 한국 출생)

・시무교회 : 우베교회 담임목사
・최종학력 : 동경신학대학원 졸업
・결혼 : 기혼

・장래포부 : 사람과 교회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각자의 내면에는 아직 보지 못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통해 예배하고 섬기면서 <나>라는 존재감이 확실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베교회에서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섬기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정시온(鄭詩溫)목사 (5월 11일 일본 출생)

・시무교회 : 무코가와(武庫川)교회 부목사
・최종 졸업학교 : 칸세이가쿠인(関西学院) 대학원 신학과정
・가족 : 劉加貝(남편), 정연원-양애경(부모)

・장래포부 : 이번에 서부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무코가와교회의 부목사로 파송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100주년 선교이념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 중 하나로 "모든 [생]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가능성과 [생명]의 빛남이 실현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대한(高大韓)牧師 (1992년 한국 출생)

・시무교회 : 쿄토(京都)교회 부목사
・최종졸업학교 :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6월15일 결혼예정

・장래포부 : 관서지방회 정기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고대한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영(韓宣榮)牧師 (1997년 일본 출생)

・시무교회 : 오사카(大阪)교회 부목사
・최종 졸업 학교 : 칸세이가쿠인 (関西学院) 대학원 신학과정
・가족 : 김성혜(어머니)

・장래포부 : 할렐루야! 이번에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간사이지방회를 통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쓰시려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한 목회자로서 오직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곳에서 제 사명과 역할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서남지방회

조은주목사 위임식 거행

우베교회에 담임목사로서 부임

지난 2024년 4월 29일(월) 우베교회에서는 서남지방회 제74회 정기총회 시에 조은주목사안수식 및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성효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신치선 목사(서남지방회장)가 '사명자의 길' (여호수아 1 : 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먼저 목사 안수식은 지방회 서기 조현규목사가 조은주 전도사를 소개한 후 지방회장 신치선목사의 사식으로 서약, 안수기도, 선언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서남지방회 우베교회 조은주목사의 위임식이 지방회장 신치선 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서약과 기도와 함께 조은주목사가 우베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금번에 우베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조은주목사는 1978년 한국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관광대학 음악과를 졸업하고 동경신학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2022년부터 우베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해 금번 서남지방회 제74회정기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가족으로는 남편이 있으며 오사카교회 정연원목사의 자부이기도 하다.

노도반도지진 피해자지원헌금 보고

사회위원장 신용섭

지난 1월1일 오후 4시경, 이시카와현의 노도반도지역에서 최대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245명이 사망하였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4600명 정도가 피난생활을 하고 있으며, 약 3780세대에 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1월 5일부터 각 교회에 노도반도지진 피해자지원헌금을 부탁드렸고, 3월말까지 약 200만엔 정도의 헌금을 총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위원회에서는 이 소중한 헌금을 피해를 입은 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분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방안을 모색하여 왔고, 우선 협력교단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에 50万円. 가톨릭의 〈카리타스 노도지원센타〉, 〈호크리크학원(北陸学院)기독교센타〉에 30万円씩 지원했습니다.

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에서는 와지마교회(輪島教会)가 반파되어 위험 판정을 받아 다른 교회에서 합동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먼저 신자들을 돕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도반도 지역에서는 봉사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회를 활용하여 봉사자를 파견하여 피해 복구에 협조 중입니다. 호쿠리쿠학원 기독교센터는 피해 지역에 지진 발생 초기부터 생필품을 실어 나르고, 학생들이 피해자와의 교류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통해 하루빨리 복구되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한, 4월 3일 지진 피해를 당한 대만교회를 위해서도 마침 대만장로교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회장님을 통해 30만엔의 위로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물가상승 등으로 교우 여러분의 가정도 여유가 없을 텐데,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금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정성을 통해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긴급성명≫

우리는 〈영주자격 취소법안〉에 반대합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4월부터 〈영주자격 취소법안〉의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특별 영주자인 재일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이나 취업,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일본에 와있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신도, 교역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특별영주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일본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영주자> 자격을 가진 한국인 신도, 교역자가 많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주자격 취소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는데 있어서 가장 안정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생활 기반을 쌓아 올린 외국인 주민인 〈영주자〉에 대해서,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주자」는 재류 기간의 제한 없이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만, 영주 허가를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재류해야 하는 것에 더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주 허가를 얻은 외국인 주민은, 일본에서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다양한 형태로 일본 사회에 공헌해 왔습니다. 〈영주자〉의 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 말 현재 891,569명으로 그 중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는 75,675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①재류 카드의 상시 휴대, 7년마다의 재류 카드 갱신, 14일 이내의 주거지 변경 신고 등의 입관법을 위반한 경우, ②세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주거 침입죄 등에 의해 구금형 1년 이하(집행 유예를 포함)가 부과된 경우에, 영주 자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주 자격 취소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져온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미 가입해 있는 국제 인권 자유권, 사회권 규약이나 인종 차별 철폐 조약에서는 외국인 주민에게 국정 참정권을 제외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유엔의 자유권 규약위원회나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이나 퇴거 강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류 자격 〈영주자〉를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인종차별철폐 조약의 제2조(체약국의 차별철폐의무)와 제5조(비차별 · 법 앞의 평등), 자유권규약의 제2조(체약국의 차별철폐의무), 제26조(비차별 · 법 앞의 평등)에 위반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도 외국인도 인권침해를 제기할 수 있는 국내 인권 기관(국가 인권 위원회)이 있고, 또 영주 외국인에게는 지방 참정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내 인권 기관도 없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인도 외국인도「함께 살고, 함께 살리는」일본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오히려 일본이 선진국에 걸 맞는 인권 제도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2024년5월2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총 회 장 양영우
사회위원장 신용섭